

南汀 金圭煥博士의 言論活動과 學問世界

崔 鐘 洙
(言 論 人)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金圭煥의 學會活動 |
| II. 金圭煥의 言論界活動 | V. 金圭煥의 學問活動 |
| III. 金圭煥의 教育活動 | VI. 맺는말 |

I. 머 리 말

韓國動亂의 慘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低開發國」이라는 딱지가 아직 붙어 있던 1950년대가 거의 저물어가던 무렵, 결코 화려하다 할 수 없는 이 땅의 言論界에 博士라는 무거운 타이틀을 걸머내고 「記者」라는 직업을 선택한 南汀 金圭煥博士의 登場은 하나의 異變이었다.

그는 곧 뒤이어 展開될, 農業社會로부터 工業社會로 탈바꿈하는 大轉換의 時期를 豫見했던 것일까?

그는 言論界에 발을 딛자마자 차분히 자리에 앉을 새도 없이, 눈부시게 돌아가는 환경변화에 맞추어 言論界의 體質改善을 위해 앞장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이 激變의 60년대와 70년대 그리고 뜻밖에도 생을 마친 80년대중반에 이르는 四半世紀동안 國內外를 누비면서 言論界의 橫的인 紐帶와 活動을 強化하고 研究機關과 教育機關을 설치하여 言論人의 再教育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言論學界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비록 자신의 學問體系를 스스로 마무리지을 겨를 없이 떠났지만 그가 이 땅의 言論界와 學界에 남기고 간 軌跡은 너무 뚜렷해서 오래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정녕 學者였다. 그러나 조용한 象牙塔 속에서 研究에 몰두하기에는 그의 가슴이 너무 뜨거웠다. 그는 言論現場과 象牙塔에 두발을 나누어 딛고 現場에 앉아서는 象牙塔을 생각하고, 象牙塔 속에서는 노상 現場을 응시했다. 그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차분히 原稿紙에 옮기려 하기 전에 行動으로 나타내고야마는 行動家였다. 일단 일에 착수하면 萬難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挑戰, 기어이 뜻을 이루고 마는 執念과 能力을 갖춘 實踐家였다.

그의 이러한 果斷性과 力動的인 性格은 世人의 눈에 그가 「敏腕의 行動家」요 「有能한 組織者요 推進家」라는 이미지를 너무 강렬하게 심어준 대신 「學者」라는 印象은 옅게 만들지

않았나 여겨진다.

그러나 그에게 그러한 性格이 없었더라면 그의 行動半經은 여느 學者나 다름없이 좁았을 것이고 이 나라 言論界와 學界에 남긴 그의 빛나는 발자취를 기대할 수는 없었을는지 모른다.

모든 일을 과감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그의 長點이기도 했지만 短點이기도 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받지 못했던 同僚들이나 協力者들은 어리둥절하기가 일쑤였고 때로는 誤解와 雜音을 일으키는 수도 있었다. 때문에 그는 일부 주변사람들로부터 獨善家 혹은 權威主義者라는 評을 받기도 했다. 더구나 일을 급하게 몰고 갈 때는 神經質의인叱責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아랫사람들로부터 反撥을 받을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言論人들과 後輩學者들에게 자신의 힘이 미치는대로 學問向上的 機會를 열어주고 뒷받침 해주었다. 그러나 活動의 絕頂期를 넘어, 더우기 健康에 자신을 잃어가던 뒷날 그의 空虛한 가슴을 메꿀만큼 그들로부터 心理的報償을 받을 수 있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존경만을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 세상을 짧으나마 굵게 살았던 사람임에는 틀림없고, 남의 눈치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뜻한 바를 곳곳이 밀고나간 사람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를 聖人처럼 美化할 생각은 없다. 다만 그가 이 땅의 言論界와 學界를 위해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足跡을 남겨 놓았는가를 筆者가 직접 알고 있는 범위에서 그리고 筆者의 手中에 있는 극히 制限的인 文獻들을 통해서 그 片鱗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金圭煥의 言論界活動

金博士가 실제로 言論實務에 종사한 것은 불과 數年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言論界에 등장한 時期는 우리 言論界가 現代的인 體質로 탈바꿈하는 중요한 轉換期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가 맡아했던 여러가지 役割은 우리 言論史에 깊이 刻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京城大에 과를 거쳐 渡日하여 東京大學에서 社會學修士(1955)와 社會學博士(1959)學位를 획득하고 돌아온 學者였다.

그가 故國에 돌아온 정확한 날짜는 筆者로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곧바로 東洋通信의 編輯副局長을 맡음으로써 이 땅의 言論界에 발을 들여놓았다.

韓國動亂後의 不安했던 國內사경과는 달리 비교적 安定된 日本의 名門大學에서 學業에 專念할 수 있었던 그가 충분한 學問的基礎를 다졌을 것이기에 그의 言論界 デビュー는 異彩를 띠었고 業界內에서는 注目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言論實務에 손이 익숙해지기도 전에 汎言論界活動에서 중요한 役割을 맡게 된다. 1961년 IPI國內委員會가 설립되자 初代 事務局長의 자리가 주어질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IPI(國際編輯人協會)는 1951년에 美國新聞編輯人協會(ASNA)가 중심이 되어 자유진영 14개국 言論人들에 의해서 言論自由의 守護를 기본목표로 설립된 國際機構이다.

韓國에서는 言論自由가 保障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加入을 이루지 못하고 몇사람의 個人會員資格만 인정받다가 4·19 革命후의 새로운 憲法에서 言論自由가 法的으로 보장되자 1960년 12월 國內委員會의 結成을 承認받게 된 것이다.

실은 IPI國內委員會가 承認되기 전인 1958년 2월에 그는 베를린에서 열린 IPI理事會에 張基榮 韓國일보社長과 金成坤 東洋通信社長과 함께 참석하여 承認교섭을 벌였던 것이다.¹⁾

이때부터 IPI와 연을 맺게된 그는 作故할 때까지 IPI가 주최하는 會議나 行事に 거의 빠짐없이 참여했고 또한 IPI가 우리나라 言論向上을 위해서 벌인 여러가지 사업에서 그는 자연히 主動的 役割을 하게 된다.

그 중 중요한 하나의 예가 韓國新聞倫理委員會의 創設에 있어서의 IPI의 協調이다. 우리나라에서 自律的規制機關으로서 新聞倫理委員會가 발족한 것은 1961년 7월이었다. 4·19 이후에 新聞規制가 철폐되자 사이비 言論기관이 범람하여 新聞人의 행패가 커다란 社會問題가 되었다.

IPI本部에서는 그해 4월에 韓國委員會 金圭煥事務局長 앞으로 서한을 보내면서 言論自由의 남용을 警告하고 自律的規制의 검토를 권고했다.²⁾

이어 韓國言論界에 反省과 自肅의 기운이 일어날 무렵 5·16革命을 맞게 된다. 軍事政府가 新聞統制法案을 마련하자 言論界에서는 예방책으로 그해 7월에 韓國新聞倫理委員會를 발족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 委員會는 構成自體가 형성했고 言論界로부터의 協調가 미흡했을 뿐 아니라 財政을 확보할 수 없어서 별로 뚜렷한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64년 韓日協定에 반대하는 學生示威, 속칭 6·3事態가 발생했다. 政府에서는 이 사태의 原因이 學生과 新聞에 있다고 보고, 學園 및 言論을 規制하는 두개의 法律을 制定하려 했다.

이에 대비해서 言論界는 韓國新聞發行人協會, 韓國通信協會, 韓國新聞編輯人協會, 韓國新聞倫理委員會, IPI韓國委員會등 5개 團體代表들이 對策委員會를 구성하고 新聞倫理委의 構成과 機能을 대폭 強化하도록 會則을 全面改正함으로써 言論規制法制定을 저지하는데 성공했다.

1) IPI韓國委員會(項), 韓國新聞協會 編, 韓國新聞年鑑 1968年度版, p. 284.

2) 上揭書, p. 284.

이때 金圭煥은 對策委의 一員으로 참가하여 IPI本部를 통해 스웨덴·노르웨이·英國·터키등의 新聞評議會·名譽裁判所등에 관한 文獻을 수집하여 倫理委의 補強에 크게 기여했다.

그가 나중에 韓國放送倫理委員會 委員長이 되어 이 나라 放送倫理確立에 一翼을 담당했던 것도 이때에 얻은 그의 經驗과 知識이 밑받침이 되었을 것이다.

나중에 IPI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지만 그에 앞서 韓國新聞研究所의 發足과 운영에 있어서의 金圭煥의 役割을 看過할 수 없다.

國內에서 新聞의 責任과 質的向上에 대한 認識이 싹튼 것은 1960년 4월 學生義舉를 전후해서였다. 그 해 4월에 열린 韓國編輯人協會總會에서는 韓國新聞의 質的向上과 責任感을 높이기 위한 研究機關의 設치를 發議하고, 新聞人의 教養訓練과 研究·調査·出版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韓國新聞研究所의 設立을 滿場一致로 決議했다. 洪鍾仁을 設立委員會責任者로 하여 준비에 착수했으나 基金確保가 어려워 지체되고 있던 중, 1963년에 張基榮·金成坤·鄭載護의 基金義捐으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이때에 設立準備委員으로는 洪鍾仁(朝鮮), 金圭煥(東洋), 趙世衡(한국), 朴權相(東亞), 朴鴻緒(時事)등 5명이었다.³⁾

이 준비위원회는 세미나 개최, 研究·調査·研究誌發行, 一般人을 위한 教養講座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해인 1964년 4월 新聞의 날을 기해 研究誌「新聞評論」제 1호를 創刊하면서 洪鍾仁을 所長으로 정식으로 발족하게 된다.

『그해 11월에 印度 뉴델리에서 열린 IPI아시아세미나에 참석했던 韓國代表 千寬宇·金圭煥 두 사람이 韓國言論의 實情을 소개하고 認識시킨 결과 아마타바 초드리 IPI아시아支部長이 來韓하여 IPI 아시아계획의 중점을 韓國으로 옮겨 新聞經營의 近代化·製作技術의 발전 및 言論人의 再教育등에 관한 적극적인 원조를 하기로 合意를 보았다.』⁴⁾

이에 따라 1965년 2월 美國 하버드大學 「시민·펠로십」의 책임자인 「루이스 라이온즈」가 來韓했고, 印度의 新聞人 M.시바람이 來韓, 4주간 修習記者 訓練計劃을 맡은 외에도, 美國의 新聞發行人 프랭클린 시즈가 新聞經營의 IPI자문관자격으로 1개월간 滯韓하는 등 자못 활발한 國際協調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IPI國內委員會 事務局長인 金圭煥은 IPI아시아支部와 교섭하여 韓國新聞研究所의 사업을 위해 年間 1만2천5백달러의 補助金을 얻어내는데 성공, 1966년에 韓國新聞研究所가 社團法人體로 再整備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新任所長은 吳宗植, 運營委員長은 金圭煥이 맡게 되었다.⁵⁾

韓國新聞研究所가 IPI와 提携 1965년부터 1968년까지 3년간에 걸쳐 벌인 여러가지 사업

3) 韓國新聞研究所(項), 上揭書, p. 279.

4) 上揭項, 上揭書, p. 279.

5) IPI 韓國委員會項, 上揭書, p. 285.

은 韓國言論人의 體質改善에 劃期的인 役割을 했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學者나 專門家를 초대하여 言論界의 當面문제에 관한 座談會를 16회나 열었으며 各社의 幹部 및 一線記者들을 위한 세미나를 數十回나 거듭하여 言論界에 新鮮한 바람과 知的刺戟을 가했고 1967년부터는 韓日編輯人을 위한 共同세미나를 交互의로 갖게 함으로써 韓日兩國 言論界의 相互理解를 깊이 했고, 數十명의 記者에게 海外세미나 또는 取材訓練, 海外視察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國際的視角을 심어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역시 IPI와 관련되지만 金圭煥의 言論界活動에서 또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아시아 新聞財團(Press Foundation of Asia)의 創設과 그 運營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役割이다.

IPI는 아시아計劃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아시아言論機構를 創設할 필요를 느껴 아시아 言論人들로 하여금 준비를 서둘게 했다. 아시아 16개국 言論人 80여명은 1967년 마닐라에 모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아시아新聞財團을 創立하기에 이르렀다.

- ① 아시아言論의 向上을 위하여 必要한 研究 및 訓練의 촉진,
- ② 地域內의 각 新聞社의 協力관계의 증진과 相互理解의 달성,
- ③ 言論自由의 伸張과 新聞普及部數의 急速한 擴張,
- ④ 新聞製作技術 및 編輯內容의 改善,
- ⑤ 新聞製作코스트를 低下시키기 위한 新聞用紙 生産의 實現등이다.

이러한 目的을 구현하기 위해서 5개의 委員會가 설치되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基本的인 기능을 담당한 「讀者調查研究센터」를 韓國에 설치키로 하고 서울大學校新聞研究所와 協力 추진키로 決定했다.

金圭煥이 그 責任을 맡은 것은 물론이고 그는 또한 아시아 新聞財團의 韓國委員會의 初代事務局長을 겸임하면서 아시아內 言論人交流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이밖에도 그는 싱가포르에 자리잡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매스컴分野의 學術研究機關인 AMIC(아시아 매스컴 및 情報센터)의 理事職과 1966년 東洋通信이 OANA(아시아通信協議機構)에 加入하면서 그 기구의 副會長職을 맡는 등 韓國言論의 國際地位向上에 獻身的으로 노력해 왔던 것이다.

Ⅲ. 金圭煥의 教育活動

金博士가 歸國 後 言論現業에 들어와 東奔西走하면서도 學者로서 또는 教育家로서의 길을 등한히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1961년 서울大學校文理大에서 매스컴理論의 講義를 시작했고 1963년에 서울大學校新聞研究所가 설립되자 研究部長을 겸임하면서 後輩양성에도 精力을 기울였다.

서울대의 陸芝修교수가 初代所長을 맡은 이 研究所에서는 매년 20명 내외의 受講生들을

상대로 마스크理論, 輿論과 宣傳, 마스크調查方法論, 韓國新聞史, 마스크特講, 마스크各論 등을 가르쳤다. 그러나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現役記者들의 入所가 부진했기 때문에 言論界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專門研究員들을 양성하여 그들의 研究成果를 「新聞研究所學報」에 발표함으로써 이 땅에 새로운 마스크理論을 소개하고 科學的인 研究方法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學界에 미친 영향은 深大했던 것으로 評價할 만하다.

이 新聞研究所에서의 初期研究는 비록 美國의 研究方法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韓國의 言論現象을 實證的·數量的으로 分析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意義는 크다고 하겠다.

이들 初期研究에 있어서 金圭煥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는 李康洙·韓斗錫·李海明에 의한 「韓國新聞인의 實態와 意識에 관한 調査」⁶⁾ 金潤根·閔庚瑞·朴東銀·王宗先·李林撥에 의한 「韓國에리트의 新聞觀」⁷⁾, 朴東銀·鄭亨壽·李林撥에 의한 「1963年 大統領選舉戰分析」⁸⁾, 申瀆休·安東星·吳根泳·許準에 의한 「韓日協定에 대한 韓國新聞의 態度分析」⁹⁾ 그리고 鄭壽景·金潤根에 의한 「農村의 마스크커뮤니케이션」¹⁰⁾ 등이 있다.

金圭煥이 言論實務의 東洋通信編輯局長職을 떠나 서울大學校 교수職에 정식으로 임명된 것은 初代所長이던 陸芝修가 作故하고 그가 後任所長자리에 안게 된 1967년이였다.

그는 그동안 言論界에 종사하면서 言論의 自由를 강조하는 IPI와 言論의 責任을 강조하는 新聞倫理委員會 설립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韓國言論人들을 「志士指向」에서 「專門職業人」으로 再教育시킬 필요성을 痛感했던 것 같다.

그는 研究所長職을 맡아마자 本格的인 마스크커뮤니케이션의 研究 및 教育기관으로서 碩士課程의 新聞大學院의 創立을 추진했다. 서울大와 言論社, 言論團體, 그리고 政府要路에 百方으로 교섭한 끝에 드디어 1968年 3월에 新聞大學院의 門을 열게 된다.

그는 그 당시의 사정을 다음과 같이 回顧하고 있다.

『막상 新聞大學院이 法的으로 발족하기는 했으나 教育指針·教科科目 및 內容, 教授陣의 確保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陣痛을 겪어야 했다. 1968年 3월부터 제 1期生(50명)을 모집하여 正規教育을 실시하기에는 너무나 時日이 촉박하였다. 初代新聞大學院長으로서 筆者가 當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수 확보의 임무였다. 8명의 전임교수의 TO를 어떻게 매꾸느냐 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서 는 지난한 일이었다. 이미 新聞研究所의 교수로서는 李相禧교수와 筆者뿐이었다. 筆者가 新聞大學院長직을 맡고 맨 먼저 교수로 천거한 사람은 美國에서 돌아온 吳甲煥씨였다. 그러나 우선 2명의 교수를 더 초빙할 필요가 있었다. 오늘날에는 數百名의 커뮤니케이션研究者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서울大學교수로서 適格者가 數명에 지나지 않았다. 美國서學位를 획득해서 돌아온 분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中央大學의 崔垸교수등과 상의해서 漢陽大學校의 朴有鳳교수와 中央大學校의 林根洙교수를 초빙

6) 李康洙등, “韓國新聞인의 實態와 意識에 관한 調査,” 新聞研究所學報 제 1 輯

7) 金潤根등, “韓國에리트의 新聞觀,” 新聞研究所學報 제 2 輯

8) 朴東銀등, “1963年大統領選舉戰分析,” 新聞研究所學報 제 3 輯

9) 申瀆休등, “韓日協定에 대한 韓國新聞의 態度分析,” 新聞研究所學報 제 3 輯

10) 鄭壽景등, “農村의 마스크커뮤니케이션,” 新聞研究所學報 제 3 輯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후 新聞大學院의 교수진용을 강화하여 隣接科學으로부터의 참여의 門戶를 넓히기 위하여 社會學에서 金一鐵교수, 政治學分野에서 崔明교수, 心理學에서 趙明翰교수가 전임교수로 任命되었으며 1973년에는 美國에서 스피치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돌아온 車培根교수가 참가해서 도합 9명의 敎科科目 및 內容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筆者의 母校 東京大學의 新聞研究所 및 同大學院과정의 것과 美國스텐포드大學(슈람박사가 당시의 新聞研究所長이었다)의 科目 및 內容을 참고로했다.¹¹⁾

이렇게 해서 大學院 1期生으로서 碩士과정 50명, 研究生 17명 포함 67명이었는데 碩士과정 50명중 15명은 學部出身者였고 나머지는 現役言論人 아니면 弘報職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構成으로 보아서도 이 大學院이 言論人再教育기관이라는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1975년 서울大의 學制變更으로 새로 學部에 新聞學科가 생기면서 이 新聞大學院이 폐지될 때까지 약 3백여 명의 現役記者들이 폭넓은 理論교육을 받음으로써 이 땅의 言論界의 質的向上에 이바지 한 바는 크게 評價받아야 할 것이다.

新聞大學院은 이와 같은 正規과정 외에도 처음에는 韓國新聞協會와 다음에는 韓國記者協會와 제휴하여 一連의 記者再教育特殊강좌를 개설했다.

먼저 韓國新聞協會와 공동으로 中堅言論人을 대상으로 3개월 기간의 特殊강좌를 1968년부터 1972년까지 4개년간 계속, 도합 1백20명에게 마스크理論과 教養을 넓혀주었다.

그 다음으로 新聞大學院은 韓國記者協會의 위탁으로 1971년부터 1973년까지 全國의 一線記者들을 위한 再教育강좌를 실시했다. 수강대상은 경력 5년 이상의 中堅記者들로 하고 1기에 2주간씩, 매년 4기로 나누어 열었다. 1기에 30명씩 참가했으므로 3개년에 약 3백 60명의 記者들이 마스크理論과 기별마다 다른 特殊專門分野의 知識을 體系的으로 받아들일 기회를 가진 셈이다.

IV. 金圭煥의 學會活動

우리나라에 新聞學會가 創立된 것은 1959년이였다. 우리 新聞學分野의 先驅者 중의 한 분이며 해방 후 記者양성에 盡力했던 郭福山을 初代會長으로 林根洙·崔峻·吳周煥·朴東雲·張龍등이 맡기해서 발족했던 것이다. 다음해인 1960년에 조출한 「新聞學報」 創刊號를 겨우 냈을 뿐 그후 몇년간 이렇다 할 學會活動을 벌이지 못하고 親睦의 모임으로 그쳤다.

이러한 原因은 첫째로 관련 學者들이 많지 않아 會員數가 적었고 둘째로 研究分野도 종래의 新聞紙學에 局限되어 있는데다가 研究熱도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 같고, 셋째로 學會活動을 뒷받침할만한 財源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데 있는 것 같다.

11) 金圭煥編, 韓國커뮤니케이션研究, 序文, 民衆書館, 1977.

그러나 金圭煥이 數年間 現役言論界에서 縱橫으로 활약하다가 1967년 서울大 新聞研究所 長직과 1968년 開院된 서울大 新聞大學院長자리를 맡게 되자 新聞學會內에도 새로운 求心點이 생기게 되었다.

창립된 지 9년이 된 韓國新聞學會는 1968년에 제 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 2대 會長으로 金圭煥을 맞아들어 새 出發을 하게 된다. 우선 金圭煥이 관여하고 있던 省谷學術財團으로부터 財政的補助를 얻어 新聞學報를 增面續刊하는 한편 定期的으로 學術發表會를 열어 활발한 學會活動을 펴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變化는 問題意識과 研究分野의 擴大라고 할 수 있다. 그 증거를 제 2회 총회에서는 學會規定을 改正했는데, 창립 당시부터 조사연구의 대상을 오직 「新聞」(journalism)이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저널리즘 및 매스커뮤니케이션」으로 넓힌 것이다. 學會의 韓國名稱은 그대로 놔두었지만 英語명칭은 종래의 「Korean Society of Journalism」에서 「Korean Society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Studies」로 바꾸었다.

사실 이러한 韓國新聞學會의 方向轉換이랄까 問題意識의 擴大는 이보다 3년 앞서서 金圭煥의 論文 「核力에 挑戰받는 科學의 交叉路」에서 분명히 提起되고 豫告되고 있었다.

『韓國에서의 매스커뮤니케이션 研究는 「社會에 있어서의 매스미디어의 責任」이라든가 「新聞의 自由」, 「알 權利」, 「經濟的制約」이라든가, 「政府의 統制」등등의 示範的문제들에 대해서 重點을 두어 왔다. 이 것은 韓國에 있어서 매스미디어(특히 新聞)가 政治的·社會的變動에 즈음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社會勢力의 하나로서 주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고 또 그대야만 하겠다는 進取적 意慾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매스커뮤니케이션의 理論的研究가 겨우 출발점에 들어선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 研究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선 두가지 要件(基盤)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겠다. 즉 하나는 매스커뮤니케이션 分野에 대하여 隣接科學으로부터의 더욱 많은 참여가 있어야 하겠고, 다른 하나는 경험적 資料를 계획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機能, 過程, 效果에 관한 理論의 體系를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¹²⁾

그는 또 자신이 會長에 취임하는 해 발행된 新聞學報 제 2호의 卷頭論文 「커뮤니케이션 科學研究의 現況과 方向」에서도 종래의 우리 新聞學會의 研究動向을 다음과 같이 批判하고 있다.

『1950년대 후반부터 大學의 新聞學 과정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講義가 설치되고 定期刊物에 논문이 게재되기도 했다. 그러나 1962~3년까지의 매스커뮤니케이션關係研究者의 대부분의 관심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歷史的考察과 自由와 責任에 관한 問題들, 즉 政治的權力과의 函數關係에 있어서의 新聞의 位置를 고찰하는데 있었다. 매스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 빈번하게 사용되었지만 사실은 저널리즘의인 問題提起 方式으로서 매스커뮤니케이션過程, 특히 送信者와 受信者의 相互關係나 內容 또는 效果에 관한 實證的인 分析研究는 볼 수 없었다. 다만 몇몇 社會學者가 韓國社會의 近代

12) 金圭煥, “核力에 挑戰받는 科學의 交叉路”, 新東亞, 1965년 1월호, pp. 221-222.

화와 관련된 農村人口의 思考方式 내지는 價値觀의 變化를 보기 위한 指標로서 매스미디어와 接觸에 관한 研究가 이채를 띠었을 뿐이었다.』¹³⁾

이어서 그는 우리나라에서 研究方法論上에 轉換이 이루어진 直接的인 契機를 1960년대 초 서울大新聞研究所의 實證的 研究活動에 두고 있다.

『1963년에 매스커뮤니케이션研究기관으로 발족한 서울大學校 新聞研究所는 韓國 매스커뮤니케이션에 관한 實證的 資料를 얻기 위해서 「H·라스웰」 또는 「B·베렌슨」의 기초적인 方法論을 원용하여 新聞에 관한 몇개의 內容分析을 시도하여 體系적이고 客觀적인 研究方法論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 各大學에서 新聞放送의 讀者 또는 視聽者調査가 社會調査의 技術을 사용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커뮤니케이션研究分野의 하나의 새로운 발전의 徵兆라고 볼 수 있다.』¹⁴⁾

여기에서 그가 自負하고 있듯이 그 당시 서울大新聞研究所에서 시도했던 一連의 新聞內容分析은 이 땅에서의 커뮤니케이션研究方法論上에 새로운 모델을 제공했던 것이며 그러한 實證的 研究의 많은 것을 그가 직접 지도했던 것이다.

같은 論文에서 그는 韓國에서 필요한 새로운 研究方向을 다음과 같이 具體的으로 提示해 준 바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分野는 多岐多樣하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이 分野의 研究는 歷史的考察, 政治學과의 관련(매스미디어制度·輿論 및 宣傳, 官制度와 매스미디어所有形態등), 社會學的側面(매스미디어의 社會的機能, 社會體系와 커뮤니케이션過程과의 相互關關係등), 心理學的要因(性格·態度 및 行動의 變容과 매스미디어內容), 經濟學的考察(매스미디어企業 및 制度의 分析, 經濟發展과 期待增大, 廣告등) 등 各學問으로부터의 協力和 參與를 필요로 하는 實證的 研究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한 分野 또는 研究方法의 偏重현상은 커뮤니케이션科學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生産的인 方向은 아닐 것이다.』¹⁵⁾

V. 金圭煥의 學問活動

金圭煥이 學問研究에 專念할 수 있었던 時期는 그의 東京留學時節이었던 1950년대였다. 앞서 말한대로 그는 故國에 돌아오자마자 言論界中堅幹部로 취임했고 동시에 IPI事務局長을 겸임하면서 國內 言論團體와 研究機關의 設立과 운영에 그의 力動的인 情熱을 바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또한 서울大學으로 옮긴 후로도 新聞研究所와 新聞大學院을 設立 運營하면서 教育과 行政에 全力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後學들에게 學問研究의 方向提示나 方法論的指導 정도는 가능했지만 조용히 자신의 學問世界를 구축해갈 틈을 갖지 못하였다.

13) 金圭煥, “커뮤니케이션科學研究의 現況과 方向,” 韓國新聞學會編, 新聞學報 제 2호, 1969.

14) 金圭煥, 上揭論文

15) 金圭煥, 上揭論文

따라서 歸國·後의 그의 研究活動은 바쁜 틈을 조개어 쓴 짤막한 論文들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共同研究에 局限되었고 獨自의인 學問領域을 定立할 만큼 體系的인 것이 되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日本에서의 金圭煥의 學問活動을 알지 못한 채 國內에서의 그의 能動的인 現實參與단을 보아왔던 사람들은 그를 「學者」라기 보다는 「行政家」로 보려는 傾向이 없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東京大留學時節 그는 基本的인 學問을 修鍊한데 그친 것이 아니라 日本學界에도 많은 刺戟을 주었을 만큼 상당한 學問的 業績을 남겼다는 사실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가 日本學界에서 비상한 關心을 끌기 시작한 것은 그의 修士(碩士)學位論文인 「外國뉴스의 選擇과 評價」¹⁶⁾이다. 이 論文은 1955년에 쓴 것이지만 그로부터 2년후인 1957년에 日本新聞學會의 學報인 「新聞學評論」에 발표됨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이 論文에서 外國뉴스가 新聞社內의 2개의 關門, 즉 外信部와 編輯部를 통과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評價나 選擇의 差異를 비교검토 했던 것이다.

이 研究는 日本의 代表的 綜合日刊紙 두개를 상대로 1개월간에 들어온 모든 外信記事 중 선택된 것과 棄却된 것을 각각 集計分析함으로써 뉴스가 하나의 게이트키퍼로부터 다른 게이트키퍼로 옮겨가는 사이에 일어나는 價値判斷의 變化를 事例的으로 포착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 研究는 David Manning White가 Kurt Lewin의 gatekeeper 概念을 뉴스의 流通過程에 적용하여 최초의 實證的 研究 「The Gatekeeper: A Case Study in the Selection of News」¹⁷⁾를 발표한지 5년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周知하다시피 gatekeeping 究研는 그 후 많은 學者들의 關心을 끌어 커뮤니케이션 研究에 있어 하나의 주요한 研究領域을 이루고 있다.

이 分野의 初期研究로는 Breed(1955),¹⁸⁾ Gieber(1956),¹⁹⁾ Macrorie(1956),²⁰⁾ Carter(1958),²¹⁾ McNelly(1959),²²⁾ Snider(1966),²³⁾ Bass(1969)²⁴⁾ 등이 있는데 金圭煥의 研究가

16) 金圭煥, 「外國뉴스의 選擇と評價」, 新聞學評論, 日本新聞學會, 1957.

17) Manning White, "The Gatekeeper: A Case Study in the Selection of News," *Journalism Quarterly*, Vol. 27, No. 4, Fall 1950, pp. 387-390.

18) Warren Breed, "Newspaper (opinion leaders) and Processes of Standardization," *Journalism Quarterly*, Vol. 32, Summer 1955, pp. 277-284. Warren Breed, "Social Control in the Newsroom," *Social Forces*, Vol. 33, May 1956, pp. 326-335.

19) Walter Gieber, "Across the Desk: A Study of 16 Telegraph Editors," *Journalism Quarterly*, Vol. 33, Fall 1956, pp. 423-432. Walter Gieber, *Gatekeepers of News of Civil Rights and Liberties: A Study of the Fate of Local News Stori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58. Walter Gieber, "How the Gate Keepers View Local Civil Liberties News," *Journalism Quarterly*, Vol. 37, Spring 1960, pp. 199-205. Walter Gieber, "Two Communications of the News: A Study of the Roles of Sources and Reporters," *Social Forces*, No. 39, October 1960, pp. 76-83.

20) Ken Macrorie, "The Process of News Reporting," *Education*, Vol. 13, Summer 1956, pp. 254-264.

21) Roy E. Carter Jr., "Newspaper Gatekeepers and the Sources,"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22, Summer 1958, pp. 133-144.

1955년에 이루어졌음으로 두번째의 Breed의 研究 “Newspaper(opinion leaders) and Processes of Standardization”과 같은 해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Breed의 研究는 主要新聞社와 通信社에 取材部長들의 뉴스選定이 다른 群小新聞의 編輯者들의 뉴스가치 判斷에 영향을 미치는 經緯를 밝히는 記述的인 研究였기 때문에 White流의 實證的 計量研究로서는 金圭煥의 研究가 바로 두번째의 位置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White의 研究가 한 사람의 gatekeeper의 뉴스선택과정을 追跡한데 비해서 金圭煥의 研究는 外信部와 編輯部라는 2개의 gate간에 일어나는 뉴스선택의 變化과정을 追跡한 점에서 한 걸음 前進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日本에서 최초로 쓰여진 이 修士學位論文이 57년에 전문지 「新聞學評論」에 發表되면서 日本學界의 關心을 모으기 시작한 金圭煥은 博士學位과정을 밟으면서는 벌써 一家를 이룬 학자로서 대우를 받았던 것 같다. 그는 다른 學者와 함께 「매스컴의 倫理」²⁵⁾라는 著書를 냈고 同學인 稻葉三千男과 함께 Berelson의 「內容分析」²⁶⁾을 번역출판함으로써 日本學界에 커뮤니케이션 研究의 科學的方法論을 紹介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의 가장 큰 學問的寄與는 1959년 東京大學大學院에 제출했던 「植民地下 韓國에 있어서의 言論 및 宣傳政策史」가 아닌가한다.

이 논문은 크게 세가지 部分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는 序論부분으로 第1章에서 方法論을 다루고 第2章에서는 前史라해서 韓日合邦이전 즉 明治維新부터 露日戰爭까지의 韓日關係史를 소상히 밝히고 있으며 第3章에서는 日本의 植民地政策의 特色을 抽出하고 있다.

둘째는 本論부분인데 保護條約이 체결된 1905년부터 解放되던 1945년까지를 4기로 나누어 각 時期별로 日帝의 韓國에 대한 言論 및 宣傳政策을 많은 文獻資料를 引用하면서 자세히 分析하고 있다.

세번째는 「附論」부분인데 여기에서는 京城日報와 東亞日報의 社說 內容을 ① 主題分析, ② 論調分析, ③ 象徵分析이라는 세가지 次元에서 分析하여 實證的資料를 抽出하여 本論의 論述을 補強하고 있다.

이 방대한 學位論文은 1976년에야 우리말로 번역되어 「日帝의 對韓言論·宣傳政策」²⁷⁾이라는 題目으로 뒤늦게 國內에서 紹介되었다.

22) John T. McNelly, “Intermediary Communications,” *Journalism Quarterly*, Spring 1959, No. 36, pp. 23-26.

23) Paul B. Snider, “Mr. Gate Revisited; A 1966 Version of the 1949 ‘Case Study,’” *Journalism Quarterly*, Autumn 1967, pp. 419-427.

24) Abraham Z. Bass, “The Refining the Gatekeeper Concept: A U.N. Radio Case Study,” *Journalism Quarterly*, Spring 1966, pp. 69-72.

25) 金圭煥著, マスコミの倫理, 이책은 金圭煥著, “日帝의 對韓言論·宣傳政策”의 著者略歷에 나와 있는데 筆者가 入手할 수 없어서 共著者나 出版社, 그리고 發行年度를 밝히지 못한다.

26) 稻葉三千男, 金圭煥 譯, 內容分析, みすず書房, 東京, 1957, 이책은 Bernard Berelson의 *Content Analysis*를 번역한 것이다.

27) 金圭煥, 日帝의 對韓言論·宣傳政策, 二友出版社, 1978.

이 國內版의 머리말에서 著者は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논문은 1905年 일본의 統監府가 한국에 설치된 이후 1910年의 韓日合邦을 거쳐서 1945年 太平洋戰爭이 종결됨에 따라 한국해방이 실현되기까지 41년간의 한국에 있어서의 言論史(주로 新聞을 중심으로) 및 統治者側의 政治宣傳을 당시의 한국 및 일본의 政治的, 社會的 상항을 배경으로 하고,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민족운동의 動向과 거기에 나타난 言論活動을 고찰하면서 기술하고 해석하여 그 주요한 特質을 分析解明하려고 하였다.

채언할 필요도 없이 植民地韓國에 있어서의 政治宣傳은 異民族으로서의 統治者가 被治者와의 支配服從關係를 유지강화하는데 集中하고 있었고 또 그 言論史는 통치체제에 동조하는 言論活動과 反對批判하는 言論活動으로 兩極化되고 있다. 필자는 이것들의 상호관련을 歷史的·時代的으로 敘述·分析하였다. 이에 있어서 필자는 한쪽으로는 항상 國際情勢, 本國政府의 政策의 動向, 그 反映으로서의 조선총독부의 政策決定, 統督의 個人的 方針에 의한 統治政策의 약간의 變경, 在韓日本人의 動靜 특히 日本人記者들의 團體的인 政治活動, 親日韓國人 및 그 단체의 活動등을 두고 다른 한편에서는 韓國인중에 의한 反統治體制운동——특히 民族主義운동과 社會主義운동——을 지도한 諸團體의 제도이념과 운동방침, 그리고 이들 운동의 方式과 韓國에 있어서의 社會的階層과의 關連 밑에서 先進정책과 言論活動을 고찰하였다.』

요컨대 이 논문은 日本이 近代國家로 탈바꿈하여 植民國家, 狹義軍國主義國家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植民地 韓國에 대해서 펴나간 言論 및 宣傳政策을 體系的으로 서술한 것으로 커뮤니케이션學界뿐만 아니라 政治學界 또는 社會學界에서도 近代의 韓日關係를 研究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文獻이 되리라 믿는다.

앞서 말한대로 金圭煥은 1959년에 귀국한 후 言論實務에 종사하는 한편 國內外言論團體活動에 관여하면서 1960년에 서울大學校文理大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 講義를 맡았다. 63년부터는 서울大學校新聞研究所강의, 그 후진인 서울大學校 新聞大學院에서의 강의등을 맡으면서 이러한 강의내용을 集大成하여 매스커뮤니케이션理論에 관한 教科書를 펴내려 애를 썼으나 日常的인 業務에 쫓겨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다만 歸國후 10여년동안 新聞이나 각종 저널에 寄稿한 논문들을 함께 모아 1972년에 「韓國의 매스커뮤니케이션」²⁸⁾이란 題目으로 出版했다.

이책의 머리말에서 著者は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책은 「매스커뮤니케이션」學 理論形成이라는 험난한 山頂에 도저히 近接하기 어려우리는 同僚·後學들의 現實論에 끌려 우선 韓國의 「매스커뮤니케이션」을 眺望하는 내 나름대로의 「조그만 窓口」를 열어 보기로 한 것이다. 또 이러한 試圖은 궁극적으로 學者로서의 筆者가 「매스커뮤니케이션」學問의 理論體系를 펼쳐가기 위한 礎石으로서 고무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지 영등한 自負도 해보며 아울러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동료 後學들에게도 조그만 刺戟劑가 될 수 있다면 筆者로서는 더 이상 多幸이 없겠다.』

28) 金圭煥, 韓國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서울大學校出版部, 1973.

論文集형식으로 된 이 책의 내용은 주제별로 分類해서 編輯되어 있다. 第1章에서는 最近 美國의 學界動向을 소개하면서 커뮤니케이션科學의 現況과 方向을 제시하고 있다. 第2章에서는 民主國家에 있어서 政府와 매스커뮤니케이션과의 關係, 韓國에서의 言論自由를 위한 鬭爭, 新聞倫理委員會 運營強化의 理論과 實際, 民主社會의 言論관계등을 묶어, 政府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關係를 설명하고 있다. 第3章에서는 褒說과 舊韓末 言論界, 매스커뮤니케이션活動을 통한 近代化과정에서의 知識人의 역할, 韓國의 社會的發展과 新聞, 社會變遷과 新聞, 大衆社會·新聞·電波미디어, 韓國新聞의 特性, 韓國저널리즘의 今昔등을 묶어 韓國의 매스커뮤니케이션現況·發展을 풀이하고 있다. 또 第4章에서는 言論人再教育 문제를, 第5章에서는 IPI活動과 관련된 國際매스커뮤니케이션 現象을 다루었으며 마지막 第6章에서는 韓國新聞의 內容과 效果分析, 아시아의 社會的 性格과 매스커뮤니케이션의 位置, 知識產業時代의 出版政策, 50年後의 新聞, 近代化와 未來學의 사이등을 「매스커뮤니케이션 一般評論」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놓고 있다.

1974年 2月 서울大學校 新聞大學院이 學制變更으로 폐지되고 新聞學科가 설치되자 그는 이전보다는 安定을 찾을 수 있어서 講義에 충실하면서 比較的 長文의 學術論文을 新聞研究所學報에 발표하기 시작한다. 그 主要論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美國과 日本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研究의 最近 十年間의 動向」(1975)²⁹⁾ 「家族計劃의 弘報戰略研究」(1976)³⁰⁾ 「TV의 視聽 및 프로그램評價에 대한 調査」(1977)³¹⁾ 「異民族間의 이미지 형성에 관한 考察」(1978)³²⁾ 「1981年度 國民生活時間調査」(1981)³³⁾ 「Marxist Perspective on Communication Theory」(1982)³⁴⁾ 「社會科學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그 過去와 展望」(1983)³⁵⁾ 「1983年度 國民生活時間調査」(1983)³⁶⁾ 「커뮤니케이션學 分野 研究論文 目錄 및 抄錄」(1984)³⁷⁾ 「最近의 韓國言論」(1985)³⁸⁾

이 밖에 그는 1977년에 서울大 新聞研究所와 新聞大學院出身의 門下生들의 研究成果를 모아 「韓國커뮤니케이션研究」³⁹⁾를 編著했으며 1982년에 東京大學의 辻村明교수와 그의 主導下에서 이루어진 韓日커뮤니케이션 硯의 研究成果를 「日本과 韓國의 文化摩擦」⁴⁰⁾이라는 題

29) 金圭煥, “美國과 日本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研究의 最近 十年間의 動向,” 서울大, 新聞研究所學報 제12집, 1975.

30) 金圭煥, “家族計劃의 弘報戰略研究,” 新聞研究所學報, 제13輯, 1976.

31) 金圭煥, “TV의 視聽 및 프로그램評價에 대한 調査,” 新聞研究所學報, 제14輯, 1977.

32) 金圭煥, “異民族間의 이미지 형성에 관한 考察,” 新聞研究所學報, 제16輯, 1978.

33) 金圭煥, “81年度 國民生活時間調査,” 新聞研究所學報, 제18輯, 1981.

34) 金圭煥, “Marxist Perspective on Communication Theory,” 新聞研究所學報 제19輯, 1982.

35) 金圭煥, “社會科學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그 過去와 展望,” 新聞研究所學報 제20輯, 1983.

36) 金圭煥, 1983年度 國民生活時間調査

37) 金圭煥, “커뮤니케이션學分野 研究論文 目錄 및 抄錄,” 新聞研究所學報 제21輯, 1984.

38) 金圭煥, “最近의 韓國言論,” 新聞研究所學報 제22輯, 1985.

39) 金圭煥 編, 韓國커뮤니케이션研究, 民衆書館刊, 1977.

40) 辻村明, 金圭煥, 生田生流, 日本と韓國の文化摩擦, 出光書店, 東京 1982.

目으로 日文共著로 出版했다.

또 하나의 빼놓을 수 없는 學問的寄與로 커뮤니케이션科學 研究에 있어서 古典이라고 할 수 있는 윌버 슈람의 「메스커뮤니케이션」⁴¹⁾과 월터 릴만의 「輿論」⁴²⁾ 등을 번역소개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VI. 맺는 말

이렇게 金圭煥의 社會活動을 綜合해보면 그는 50년대에는 日本에서 커뮤니케이션科學의 學者로서의 素養을 쌓았고 60년대 초반에는 言論人으로서 現場實務에 종사하는 한편 言論 活動家로서 國內 言論團體의 組織, 國際言論과의 紐帶強化에 힘썼고,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까지는 教育家로서 주로 言論人再教育사업에 獻身했으며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에는 學者로서 講義에 임하면서 學術論文을 發表해오다가 미처 獨自的인 學問體系를 完成하기 전에 뜻하지 않게 이 세상을 뜨고 말았다.

만약 그가 60년대초에 言論現場에 뛰어 들지 않고 教壇에 安住할 수 있었다라면 이 땅의 言論學研究에 보다 알찬 열매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言論界가 對內·對外的으로 그토록 활발한 紐帶를 지니면서 그토록 效果的으로 體質改善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인지 헤아려보게 된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하다. 그가 메스커뮤니케이션理論에 밝은 學者이기에 言論界에서도 그에게 그만큼 重責이 맡겨졌던 것이고, 그가 言論現場에서 그만큼 比重이 큰 役割을 하고 있었기에 學界에서도 그의 方向提示가 무게를 지닐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비교적 平穩을 찾을 末年期에 그동안의 現場經驗을 살려 평소 마음속에서 設計해 오던 韓國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研究를 몸소 體系化시키지 못하고 뜻밖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이 세상에 뿌리고 간 많은 씨앗들이 자라나게 되면 그가 바라던 열매는 풍성하게 거두어 들일 수 있으리라 믿는다.

41) 金圭煥 譯, 메스커뮤니케이션(Wilbur Schramm 原著), 서울대 출판부, 1970.

42) 金圭煥 譯, 輿論(Walter Lippmann 原著), 현대사상사, 1973.